

연중제2주일

기도서 P. 419 C해

1독(이 사 66장18~21절)
2독(히브리12장5~7. 11~13절)
복음(루 가 13장22~30절)

숲정이

발행인	법석규
인쇄인	정승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1 전주시 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감론□



구원의 문 (좁은 문)

김반석 신부

천당문이 좁다니 어떻게 들어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내용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디모테오전서2, 4). 우리를 조성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리실 이유는 절대로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느때든지 자기 농장에 부르십니다. 또한 사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기쁜 소식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간신자는 직고, 첫째가 맨말이 되며,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기보다 어렵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구약성서를 살펴봅시다. -노아 홍수때 그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소돔과 고모라의 참사에서 롯과 그 두 아들만 구원받았고, 이집트로 피난온 이스라엘 백성중에 요수에와 그의 몇 동료만이 입성하였던 사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어떤 바성과 자극을 주는 일이 아닐까요?

요한 묵시록에도, 무서운 유희못에서 구원될 길은 「주를 알고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회개를 권하는 노아를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하고, 율육에 몰두하여 천벌을 두려워않게 여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광야를 헤매면서도 천벌임을 모르고 잤은 원망과 사악에 전념한 이스라엘 백성들-아무리 인자와 자비가 하느님의 본성이라 해도, 공의(公義)에 비추어볼 때, 달리어 쫓힐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는 오직 개인 하나 하나입니다. 구원은 일단 개인의 일입니다. 종교가 없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느님의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또 믿음에 상응한 실천 행동이 없고서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넓은 세상, 넓은 길을 이것도 좁다고 활보하며 갖가지 7죄종(七罪宗)-교오, 간담, 미색, 분노, 탐도, 질투, 해태)에 해매인들 이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구원은 촌각(寸刻)에 달려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될 일입니다. 한 개피 남은 성냥으로 불을 켤때, 손으로 보는 바람을 막고 숨을 죽여 온 정성을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엎드려졌던 사울이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하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죄많은 여자가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었을때, 그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인에게나 착한이에게나 끊임없이 성총을 주시어 우리와 온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여 비좁은 천당문으로 악착같이 입문(入門) 합시다.

(여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아! 언제나

아침 눈뜨며
나는 생각하노라.
저녁 황혼에
말하노라, 한숨으로.
오늘도 기쁜 소식은
오지 아니하였구나.
새장속에 갇힌
하얀 비둘기를 생각하며
한밤을 뜯는으로 새우나니
한낮에도 밤인양
허공을 더듬노라. -

문정현 신부님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학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짝막한 글과 함께 위의 시를 정성껏 적어 온 학생이 있었다.

사실 문신부님의 근황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 교형자매는 많으리라 믿는다. 더우기나(개전의 정)이란 낙인을 받고 석방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자가 하나 둘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파렴치범(破廉恥犯)이 아닌 문정현 신부님께게서 개전의 정을 구하는 일은 모험이라기보다는 한뫼 보겠다는 도박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의 나쁜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곁에 돌아오기를 고대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위한다면, 오직 그뜻의 성취와 그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8월 24일만이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숲정이 산책



□ 성서교실 ⑩ □



「티모테오 후서」

조 정 오 부 제

티모테오 후서는 바울로의 서간들중 두드러진 단일성을 이룬 서간들, 즉 내용이 비슷하고 수신인들마저 자신의 제자들인 지방 교회의 주교들로서 그들이 사목적 직무 이행에 지침을 주고자한 소위 사목서간들 중 한 서간이다.

이 세권 (티모테오 전·후서, 티토서) 사목서간의 저자를 밝히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서간들이 비교적 후대에 나타난다는 점, 바울로의 큰 서간들과 이 사목서간들에 사용된 언어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 신학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 또 티모테오 후서 2,9을 기초로 경계가 삼엄했던 바울로의 수인 생활로 인하여 그 저자가 바울로가 아니고 그 후대의 한 제자나 아니면 비서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서간들이 후대에 나타났다는 논증 중 Polycarpus 편지가 이 서간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나 그 귀절들은 격언체인데 격언체는 문학적 연관성 없이 사람들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말들이요, 180년 경의 무라토리 정전 목록에 확실히 바울로의 저서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150년경의 마르치온 정전 목록에는 빠져 있다. 또 언어상의 차이를 주장하는데 이는 소재가 많이하게 다를 때문이며, 이 서간이 바울로의 친작이 아니라면 서간에 나오는 구체적인 소식들(4,9-22,) 그리고 다른 곳에는 천연 나타나지 않는 바울로의 친우, 협력자 그리고 원수들의(1,15-18; 1,2-7; 4,19) 무수한 이름들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저자가 바울로가 아니라도 적어도 위의 예를 든 대목만은 바울로의 친작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며, 특히 이 티모테오 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감옥살이를 하는 바울로의 서간인 듯하다는 견해다.

수신인은 리스트라에서 태어난 티모테오로서 (사도16, 1) 바울로가 첫 전교 여행시 그를 알게 됐고, 그후 그는 바울로의 항구한 동반자요, 조력자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다가 에페소의 주교로 임명되었다(티모전1,3).

이 서간은 바울로가 자기 제자인 티모테오에게 로마 감옥에서(1,17) 자기가 불리한 재판안도를 받게 되리라 암시하며 (4,6) 홀로 버림받은 불우한 처지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자신을 빨리 방문해 달라고 간청(4,9) 하는 박해의 위험에 처한 1세기 후반기에 저술된 바울로 사도의 유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인에게 다가올 박해와 시련에서 복음과 신앙을 고백케 하는 동시에 (1, 6-14; 3,10-17), 모든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하여 직무에 충실하도록 권고한다 (2,1-13; 4,1-5).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생활 방도를 촉구하고(9,8) 윤리적 권고를 하며, 자신의 의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총의 선물이 구원을 가져 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1,9), 또 이 서간은 사도들이 지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후계자(主敎)를 직접 임명했고 임명된 주교는 그들의 후계자를 임명하여 계승권에 의한 교계제도가 겹쳐 형성돼 감을 말해주고 있다(1,6; 2,7).

□ 교령 (敎令) 의 해설 □

정관수술(精管手術) 단죄(斷罪)는 계속 된다.

최근 교황청으로부터 결혼장애 즉 불능장애(不能障礙)에 관한 교령이 공포되자, 일반 매스컴에서는 가톨릭교회가 마치 정관수술 행위를 정당시하게 된것같이 보도하고 있으나 교령의 내용상 정관수술을 금해오던 과거의 전통적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교령의 내용은 다만「불능장애」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대답한 것 뿐이다.

즉 불능장애는 부부 성교의 불능을 말하는 것이지, 정액사출장애가 결혼을 무효케 하는 불능장애가 아니라는 내용을 밝혔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정관수술은 죄악이지만, 정관수술을 한 사람이 성교를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못할 처지는 아니라는 해명 뿐이다.

한 마디로 가톨릭교회는 전에도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게 결혼을 금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혼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관수술의 유행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관수술자들은 불능장애자로 취급하여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극도의 보수적 주장이 나돌아, 교회에서는 다만 이런 사람에게, 불능장애의「불능」이란 말은 「성교불능만을 말할 뿐, 정액사출의 불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이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의 공식 해설이며, 아래에 교령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 신앙 교리성성 교령 □

결혼의 불능장애에 관하여

신앙교리성성은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후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이유는 그것이 불능장애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과거의 관습을 전제로 하여 본 성성과 교회법 개정 위원회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본 성성의 위원 추기경들은 1977년 5월 11일 수요일에 총회를 열어 아래의 의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전부터 영구적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부부 성교를 완결할 수 없는 것이 결혼장애가 되는가?

2. 그렇다면 부부 성교에는 음양에서 마련된 정액의 사출이 반드시 필요한가?

첫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둘째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바이다.

현 교황 바오로 6세는 5월 13일 금요일에 본 성성장관에게 허락한 알현에서 이상 교령을 인준하고 공포하기를 명하였다.

로마 신앙교리성성에서
1977년 5월 13일
장관 추기경 세베
차관 대주교 하머

* 신앙인의 영혼 양식인 성서·성물 *

가톨릭 출판사 전북 총판

천사의 집

□전통 성당 구내 (前 대전 신용조합 사무실)

□연락처...전화 2-3222

+ 반주법(경음악, 명곡), 화성학,

성악(독창, 합창) 출장지도



전자울건, 피아노

개인지도

이일규 (알로이시오) 이삭희 연락처

전주소방서 북방 70미터 기린전채2층

□ 문정현 신부 면회기 □

왜 그 러 지 ?

문 정 현 신 부

8월 5일 오후, 한 달 봉급 타듯, 8월 몫을 찾은 날이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 했었는데, 부모님들의 거절로 혼자 다녀올 수 밖에 없었다.

자식 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비기련마는 이렇게 마음 정하신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8월 3일인듯 하다. 모 기관에서 아버님을 찾아왔단다. 요사이 많이 듣는 개건의 정을 적당히 표시하고 나오시도록 아들을 권고해 보시라는 주문을 하더라. 자식에 대하여 약한 부모의 정을 움켜져보려는 심산이었으리라. "어렸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도 됐지만, 이제 신념에 사는 성격자며, 그 신념으로 육고도 마다않으며 기쁘게 사는 이에게 무슨 말을 하겠소? 1년 반을 살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지 잘못했다고 하겠소?" 아버님의 대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 싶지만 가지 않으시겠다. 일컫는 관용이란 사랑인데, 사랑에 조건은 무슨 조건이란 말인가? 왜 그렇게 응졸할까? 하는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다리는 역시 절고 계시며 여위었지만 검은 얼굴 탓인지 건강하게 보였다.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형님, 요사이 귀찮은 일 없었습니까?"—"나, 요전에 작서를 쓰라고 하더라" "그래서요?"—"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도 모 기관에서 와서, 작서를 응용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엔 같이 오시려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오시지 않겠단다"—"우리 부모님을 최고다"고 형님은 박수치며 친근스럽게 기뻐하셨다.

신신부님께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 외부와의 절연작전으로 밖에 봐 줄 수 없다. 그 한에가 여러 사람들이 책이나 영치금을 영치시키면, 전해질 때는 문규현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도매제 왜 그러지? 합신부님과 의 면회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김추경님의 서신을 가지고 만났다는 것과, 우리는 이런 주문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것과 그 의미가 문제이나 이 상황안에서는 인간적 기교일 뿐이고 크리스찬으로는 하느님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 합신부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렇지! 암 그래야지" 맞장구 치시며 당신의 굳건한 신념을 표하셨다.

"내 편지 받았나?"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한달에 한번 편지를 허락하면서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부리」를 보냈는데 받아보셨어요?"—"허락되지 않았어. 그것뿐 아니라 순교사화등 많은 책이 허락되지 않아. 1968년 26위 순교복자 시복식에 정부에서도 파견해 놓고 그들에 대한 전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것은 이윤배반이야. 김안드레아 신부님같은 깊은 성덕을 본받을까봐 두려워시켰지."

이쯤되니 면회시간이 다 됐단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 싸워달라"는 주교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옥중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신다. "이제 산만큼만 살면 안 됩니까?"하고 말을 던지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게 문제냐" 하고 웃으시며 농을 던지신다. 우리는 서로 두손을 불끈 쥐어보이며 헤어졌다.

형님, 같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건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심이 (2) 김병오

8.15 특사에 신부님은 한분도 석방이 안 되었구나



답답하다



당국이죠

신부님들이 빨리 석방될것 같지 않으면...



그곳에다 성당이나 짓도록

허가해 주쇼



◇ 신장개업! ◇

다모아 양복점

황 정 규 (요셉)

이리시 창인동, 익산군청 앞

□타자수리,취업알선,매월검정□

뉴-타자 학원

원장 신 송 무(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총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③ 4577)

□직원 모집 공고□

(가톨릭 신자)

1. 경리직
2년이상 경력을 가진 미혼여성
○명
2. 매점 점원
18세미만 여성으로 중학교 졸업자
○명
3. 주방 근무자
45세미만 여성으로 위모 단정하고 요리솜씨 있는 분
○명
4. 가톨릭 시보 취급자
남자로서 가급적 야간 고등학교 재학생 환영!

※ 이상 응모자는 전주 가톨릭신타 사무실에, 8월 28일까지 서류(이력서, 졸업 증명서) 제출 바람, 면접-8월 29일 오전 10시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공
지
사
향

1. 수재의연금 감사합니다(고산분당 8,550원, 금산분당 순교자 모후 P.5,000원)
 2. 혼인문제 상담일(24일<수> 오전 10-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22일<월> 오후 8시) 신구교 합동
 4. 정의 평화 미사(29일<월> 오후 8시, 전동성당)
 5. 바로 보내 주세요...① 분당 실정 파악을 위한 설문지② 양심 수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
- 앙케이트 실시(일시-28일<일>, 대상-전주시내 6개분당, 주최-J.O.C.교구 연합회)
- 엄기봉 신부님 주소 130-78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천주교회(Tel 253)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봉섭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장덕창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

1. 성모회 월례회: 21일 공식미사 후, 강당
 2. 성경, 성가집을 지참하셨습니까?
 3. 미사중에 「목주의 기도」 금지
 4. 알고 지냈습니다! 미사후 성당 마당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5. 부녀회 목상회(40명참가),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잘 마쳤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0,11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성모회 정기 총회: 오늘 공식미사후,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3. 공소 어린이 첫 영성체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
4. 명상의 집 신축기금 신입 명단(남노송 편) 이태영(12만), 이금옥, 김복순, 이경순(각2천), 배복례, 백보운, 이매련, (각1만), 박귀남(2만), 길언년, 이홍재, 최순자, 최복래(각5만), 최웅권, 서정금, 오경이, 은월주(각3천), 이덕효, 김순이, 최정자, 김복래(각5천), 익명(3십만), 김정옥(1천),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교리교사 공소(전당리, 미산리) 봉사 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2. 주일학교 방학: 16일~9월3일, 개학(9월4일오후2시)
 3. 부녀회 월례회: 미사후
 4. 젊은이의 밤: 매주 <금>밤 8시, 성가, 레크레이션
 5. 신축 헌금 신입 감사합니다:
이정집(5천), 방준오(2천) 총계 8,965,000원
- 지난주 봉헌금: 56,305원
 특별 헌금: 51,9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하계특별교리8-13일)에 협조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회(9,300원), 신부님(10,800원) 부녀회(1만원), 사도회장(7천원), 김글라라(15,000원), 장동주(5,5000원), 최용구(5,450원), 유기순, 유순자(각3천원), 송영자(4천원), 박인식(2천원), 최소피아, 김바울라(각1천원), 오해레나(5천원), 계 82,050원
2. 병자 방문 및 봉성체: 26일 <금>9시부터 해당 가정에서는 25일까지 사무실에 연락바람
3. 파티마 성모상 모시고 특별기도! 매일 오전5시반-

오후10시까지 성당문 개방. 공동, 단체, 개인별로는 잘하고 있으나 특히 가정별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람

4. 감사합니다: 스피카 증설(익명,1십만원)
- 지난주 봉헌금: 44,375원
 성모 승천 축일 봉헌금: 32,990원
 성모 승천 합동 가정미사 봉헌: 81세대71,6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부녀 주일: 10시 미사후, 월례회
 2. 유아세례식: 22일 <월> 아침6시
 3. 교무금 수납 및 현황을 미사후 사도회 임원들께써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44,970원
 성모 승천 축일 헌금: 37,555

(숯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예비자 교리: 9월 첫주부터, 사무실에 신청바람
 2. 공동체 성가를 모두 배우시다. 주일 때 미사후
 3. 국민학교 귀영동이를 <토> 교리반에 보내주세요
 4. 중고생 모임 시간 변경: 다음주 부터, 주일 오후4시
- 지난주 봉헌금: 69,361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유성
사도 회장 유성

1. 꼬미씨음: 오늘 오후2시
 2. 새성당 추진 위원 총회: 22일 <월> 밤8시반
사업 중간보고, 3천만원 돌파기념
 3. 예비자 교리 계속: 주일과 수요일
 4. 영세, 첫 영성체 기념 사진 사무실에
 5. 자모회 새성당 건립위해 목주기도
10시 미사후, 효자동
- 지난주 교무금: 118,560원
 새성당 신축헌금: 전동-최세라피아, 이수산나, 김엘리사벳(각1만), 김아오스딩(5천)/ 동교-최안젤라, 소요안나, 김진원(각5천)정진숙(10만) / 동완산동-유테레사(2천) / 풍남동-양수업(10만) / 경원동-이아나다시아(1만) / 기타-차상렬(1만), 이고스마(5천)

주계 277,000
누계 30,482,000원(금품포함) 감사합니다